

월간 증현

'79 8 월호



영혼을 건지는 열심

성경에 보면 열심이라는 말이 여러군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 사9 : 7 하반절에는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있다.

왕하10 : 16에 보면 여호나답을 향한 예후의 말 가운데 나와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한 말씀도 있는 것이다. 또한 엘리야 선지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정한 자라고 하는 말씀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제3 : 19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 하시면서 저들에게는 믿음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졌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 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신앙의 열심을 원하신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울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필수적 요건이다. 무슨 일이나 열심은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것은 열심에도 두가지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롬10 : 2 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그들의 열심은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릇된 열심이라고 말씀했다.

그런고로 열심에는 진짜 열심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열심 혹은 위선적인 열심도 있을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스펄존(C. H. Spurgeon) 목사는 1865년 7월 16일 주일 아침 그가 세운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 교회에서 행한 설교에서 그도 역시 두가지 열심을 이야기 한 바 있다. 그 하나는 회심하지 못한 자의 열심(unconverted zealots) 이요, 다른 하나는 참 신자의 진정한 열심이라고 하였다. 열심이 좋은 것이로되 회심하지 아니한 자의 열심은 무서운 것이다. 사울왕의 열심이 대단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열심에는 살기가 등등하였고 그의 열심은 자신의 의를 위한 자신의 정

치적 생명연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기에 그것은 열심은 굉장한 열심으로되 신앙적인 열심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9 : 7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와의 열심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했다. (왕상19 : 10)

시69 : 9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을 했다. 곧 내게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정도로 넘쳤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도 역시 내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굉장하노라고 했던 것이다.

또 행21 : 20에 보면 저들은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대한 성도의 열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줄로 안다.

단 2 : 14말씀이나 고후 9 : 10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의 열심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다.

여하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절대 필수적 요소인것이 틀림없다. 모이는 일에 대한 열심,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심, 봉사에의 열심, 선교에의 열심, 이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이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열심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이기도 하다.

여름철 계절학교와 모든 행사가 은혜중에 거의 끝을 맺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쥐어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말씀으로 또는 손발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주의 종들의 열심인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리라고 믿는다.

주 여호와와의 열심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우리는 늘 갖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주여 열심 더욱 주옵소서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 차 례 *

권 두 언 영혼을 전지는 열심	주 간 · 2
이달의말씀 성도의 참 재산은	김창인 · 4

* 특별기사 / 이연호목사 순직 *

• 특별취재 - 애굽선교사 이연호목사 순직	편집실 · 6
• 경과보고 - 목사님의 홀리신 피 헛되지 않아	한경일 · 8
• 인사의말 - 하나님께 영광돌려 감사 해	김득룡 · 9
• 조 사 - 아프리카와 중동인의 제물이 되서	정기성 · 10
• 조 사 - 예수님 성품 닮으셨던 목사님	차 윤 · 11
• 설 교 - 개척자의 길	이연호 · 12
• 조 사 - 애도! 이목사	서민수 · 13
• 만난사람 - 애굽선교사 김진숙전도사	고재원 · 14

제 7 권 제 68 호

월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24:1-2

기독교윤리	초대교회의 윤리적배경	김하진 · 16
편집실칼럼	회소가치의 횡포	오태용 · 18
찬송가감상	기쁜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김중석 · 18
도 서 정 보	7월에 들어온 도서	도서실 · 19
책 소 개	기도의 능력	남성호 · 19
기 행 문	세계 단합대회에 다녀와서	김의철 · 20
주간의만나	시편61편	김창인 · 22
전도위원회	농어촌파송전도	전도위원회 · 23
특 별 기 사	구역단위 철야기도회실시	김재창 · 24
선 교 월 보	선교지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6
구역 소식	7월중 새교우 · 결혼명단	구역권찰회 · 28
주 교 소 식		교육위원회 · 30
교 회 소 식		편집실 · 32
이렇게 말한다	지금도 성경과 같은 계시가 있나?	김재창 · 35
실로암 못가에서		편집실 · 36
8월의 행사		편집실 · 34
편집하고나서		편집실 · 34

표지설명: 민족해방이 있는 8월 민족복음화운동이 우리의 지상과제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다방면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금년에는 군전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군부대에서 합동새례식의 한 장면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성도의 참 재산은

성경 / 시 73 : 22~28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은 무엇이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재산을 소유하는 영육간에 부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식량, 입어야 되는 옷, 또 편히 쉴 수 있는 집, 그 외에도 열가지 백가지, 셀 수 없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재산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여러가지 재산이 넉넉하면 선한 일을 해도 힘있게 하고 심지어 악한 일을 해도 힘있게 합니다. 또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바로 쓰기만 하면 뉘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랫사람을 구김살없이 키워 주는 뉘사람 노릇을 하고, 오고오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선한 업적을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가지 재산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1.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재산이 무엇이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 은, 보석, 보배, 땅, 집, 공장, 다 재산입니다. 한마디로 묶으면 돈, 돈이 재산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예쁜 옷, 맛있게 먹는 것들을 집에 들여옵니다. 돈은 재산중에 일등으로 생각하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지식이 재산입니다. 많이 아는 지식, 깊이 넓게 아는 지식, 지식만 있으면 어디 가도 대접받고 생활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식은 분명히 재산입니다.

기술이 재산입니다. 기술이 능하면 돈도 많이 생기고 대접도 착실히 받으면서 세상 인생 나그네 생활에 구김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신용이 재산입니다. 돈은 없어져도 신용만은 없어

지지 아니하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외에는 권세, 건강한 몸도 재산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재산들이 있는데 이외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보다는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 배운 지식, 닦은 기술, 자기의 맘이 흘러진 재산의 값이 조상에게 물려 받은 재산보다 십배 백배 아름답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이 귀하지 약자를 가슴치게 하고 얻은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니 그 재산이 자기에게 복이 될 수가 없고 불행을 가져 올 것입니다.

땅위에 여러가지 재산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영원성이 없습니다. 돈, 권세, 건강이 나하고 늘 같이 있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위의 재산들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실력이 모자랍니다. 돈이 내 근심을 없게 할 수 없으며, 권세가 내 질병을 고쳐 줄 수가 없으며 인간의 지식이 내 죄악을 씻어 줄 수가 없습니다. 땅위의 재산들은 어느 면에서 유익을 주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손해도 주는 때가 많으니 땅위의 재산은 죄악에 때 묻은 것 너무 많고 문제 해결하는 실력이 너무 모자라는 것이 인간들이 가진 재산입니다.

심지어는 재산이 좀 있다고해서 교만한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을 만 날수가 있습니다. 땅위에 재산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대할때 잔인성으로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사랑 대신에 잔인성이 흘러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욕을 물리고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다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값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절승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2. 어떠한 재산을 가져야 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재산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말했읍니다. 하나님 한분이 우리에게 모든것을 다 주시는 창고, 섭리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워 숨는 날,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가 됩니다.

성도의 아름답고 영원한 참 재산은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식은 나를 보호할 만한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손 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안에 보호를 받읍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꾀박을 받아서 3년 5년 쫓기어 다닐때에 얼마나 위태로운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왕은 손을 못대었습니다.

하나님 품안에 안기워 있으면 언제든지 선한 위치에서 책임을 담당하는 바보스러운 사람 같으나 손 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보이는 구원의 성곽속에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재산으로 알고 하나님의 품안에 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인도하십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지혜도 건강도, 권세도, 주시고 다 때를 따라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현교회는 하나님을 모셔야만 새생전 짓는데도 넉넉하고 천국 일꾼 키우는 데도 넉넉하고 북쪽 하늘 밑의 예배당 지으러 가는 길도 열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땅에 것만 따라가지를 맙시다. 땅의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배반하면 하늘나라 잃어 버리고 땅의 것까지 잃어 버리는 날이 옵니다. 돈 때문에 아들 딸 주일날 과외공부 시켜서 고급 상급학교에 보낼려고, 권세 얻으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그러한 사람은 땅의 것은 다 얻을지는 몰라도 천국을 잃어 버린 사람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 버릴 사람이니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참된 재산을 잃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보배를 소유하는 성도가 됩시다.

3. 하나님을 내 재산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을 내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하는 겁니다.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출발입니다. 본토는 우상을 섬기던

옛날 구습을 떠나라는 것이고 친척은 당파싸움 하던 좁스러운 생활을 떠나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모으던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것이니 욕심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줄 알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줄 알고 과거에 범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인간적으로 볼때에 위태롭고 바보스럽지만 순종합시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 너무 어려운 인간적으로만 바보스러운 일 같았으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고 갔읍니다. 성공했읍니다. 북한선교를 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행동이나 하나님의 권능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행하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셋째,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겁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엘리아때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사렘명의 한 과부가 한끼 먹을 것밖에 안 남은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굶어 죽지 않고 살았읍니다. 생명 바쳐 선한 일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역사에 없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사치하지 맙시다. 나라의 좀벌레 노릇하면 서까지 사치하지 맙시다. 내게 넘치게 있어도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리만치 쓰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 봅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개인의 영혼에 천국이 있읍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싫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욕심따라 가면 세상의 것은 얻을지는 몰라도 얼마 있다가 쫓겨 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진정 봉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육간에 부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전등불이 밝아도 스위치만 끄면 캄캄해지고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해도 영혼만 떠나가면 무덤에 묻혀야 하는 시체야, 신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거지중에 거지요, 하나님을 모신자는 부자중에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바쳐봅시다. 그래서 영육간에 부자로 평안을 누리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선교사 이연호목사 순직



7월11일, 애굽현지서 교통사고로

애굽선교사 이연호목사가 지난 7월11일 애굽선교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이연호선교사는 이날 애굽과 수단 두나라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기독교 기관 연합집회 강사 초빙을 받아 알렉산드리아 근교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비보는 교계와 온 교회의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이연호선교사 순직 경위

고이연호선교사의 순직경위를 외무부와 애굽주재 공관에 조회하여 알아 본다.

고이연호선교사는 7월11일 애굽과 수단 두나라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기독교 기관 연합집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 7월11일 오전 7시경 카이로의 숙소를 출발, 국도를 따라 알렉산드리아로 북상도중(중도에서 애굽경찰관 1명을 동승)전방의 트럭을 추월코자 할 시 맞은편에서 오는 대형트럭을 피하는 순간 충돌, 이선교사와 동승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사망, 승용차는 전파하였다. 순경시체를 꺼내는데 약 5시간이 걸려 7월 11일 오후 9시30분경 인근 파출소에 신고가 되었다. 이 사건이 한국관단에 알려진 것은 7월12일 오후 1시20분이었다. 보고에 접한 카이로주재 공관에서는 관계관을 사고 현장에 파견, 현장과 담당 경찰서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현지에서 장례토록 결정

교회는 7월12일, 외무부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들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은 공교롭게도 그 주간부 산지방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계셨다. 비보를 들은 당회장 김목사님은 곧 상경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었다. 온 교회가 비통에 잠기고 놀랐지만 우리가 전해 알 수 없는 애굽에서 돌아 가신 고 이연호목사의 사후관리 문제가 시급한 문제였다. 교회는 위해 협의했다. 당회장 김목사는 직접 애굽에 가

시고자 했으나 피할 수 없는 계획들이 당회장 김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는 해외복음선교회의 부회장이신 한경일장로를 교회대표로, 고이연호목사의 장인되시는 김득몽목사(총신대수)를 유족대표로 애굽에 보내어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 시신인양문제와 장례 절차를 논의하던 중 고이연호목사 사모되시는 김신숙전도사는 현지에서 장례를 치를 것을 희망하였다. 이는 선교사님 생전에 늘 순교를 말씀해 오셨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위해 몸 버려 희생하실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해 오셨기에 그 뜻을 따라 현지에서 장례를 치루도록 요구했다.

교회는 이 뜻을 감사히 받고 애굽으로 떠나시는 두 분도 그렇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지난 7월14일로



〈현지장례 - 하관예배 모습〉

후 5시30분 김포공항을 떠나 어렵고 힘든 길을 나섰다.

하나님께 영광돌린 현지장례

애굽 현지의 한인교회 교우들은 고이연호 목사를 한국에 운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장례를 치루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부 반대를 하며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신 두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동하며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게 되었다.

장지는 애굽 신학대학의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묻히던 묘지로 정했다. 7월16일 오후 3시 마디 커뮤니티교회에서 장례예배가 드려졌다. 이 장례식에는 애굽총회의 지도자를 위시해 전세계의 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 종합상사 직원들, 교포들, 대사관 직원들이 마디 커뮤니티교회를 꼭 메운 가운데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많은 조객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많은 애굽주재 외국선교사들, 애굽교회 지도자들이 장지 하관예배에도 참석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하나님께서 이연호선교사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번일을 계기로 애굽총회와 한국교회에 다시는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고이연호목사는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히 해 주신 분이였다.

만장을 메운 추도예배

애굽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자 교회에서는 7월25일 수요일 저녁시간에 고이연호선교사 추도예배를 드리기로 정했다.

7월25일 오후 7시30분 온 교인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본당과 별관, 별관 3층까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인 가운데 고이연호선교사 추도예배가 엄숙하게 은혜스럽게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전도위원회 지도교역자인 김종택목사가 사회를,



(7월25일 드려진 추도예배)

전도위원장 최석주장로가 기도를,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이날 예배에는 애굽에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오신 김득룡목사와 한경일 장로가 현지 장례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 현지 장례보고를 통하여 우리는 이연호목사의 순직경위와 장례식의 분위기 또한 목사님의 순직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이날 추도예배에는 현지 장례예배의 일부분이 녹음되어 싣혔으므로 듣기도 했고 고이연호선교사의 생존시 설교를 녹음으로 들어 모두가 생존의 이연호목사를 회상하며 깊은 감회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이날 고이연호선교사의 사모인 김진숙전도사에 대한 애굽선교사 파송예배도 결들인 뜻깊은 일이었다. 김진숙전도사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고이연호선교사의 열정과 그 사명들을 계속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결심하고 선교사의 임명장을 받고 선교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날 추도예배에는 앞으로 계속적인 애굽선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헌금을 하여 800여 만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연호 선교사와 애굽선교의 발자취

순직한 고 이연호 선교사는 1941년 10월1일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화현리 영선동35에서 이종원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58년 포천중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선교사는 목회의 소명을 받고 1972년 총회신학대학 기독교철학과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1975년 총회신학대학 신학연구원 3년을 수료했다.

이선교사는 1964년 성서교회 유·초등부 교육지도로 출발하여 1969년에 성현교회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1970년에는 성일교회 유·초등부 교육지도, 그리고 1974년 3월 1일 중현교회 중등부, 1976년에는 고등부를 지도하다가 1976년 8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1976년 9월26일 사우디정부의 반대로 이곳을 철수하여 일시 인도네시아 등 제 3국에 체류하다가 1977년 3월 12일 애굽선교지에 정착, 1977년 6월 1일에 카이로 한인연합교회를 설립하고 1978년 9월부터는 애굽카이로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후배양성에 전력을 쏟았다.

이번 순직의 통보를 낸 애굽주재 공관이 한국 외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전문 보고에 의하면 고 이연호 선교사는 「어려운 환경중에서 헌신적 선교 활동은 물론 한인교회 설립운영과 주일학교 개설, 그리고 교민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의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있다.

고 이연호 선교사님 유가족으로는 사모 김진숙전도사와 어린 딸 은혜(7세), 지혜(5세), 에스더(4세)가 남아 있다.

목사님의 흘리신 피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7월14일 한국을 떠나 17일 카이로에서 김득룡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 오실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4일 오후 5시30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동 바레인을 거쳐 카이로에 도착한 시간이 주일날(15일) 10시였습니다. 공항에는 영사관의 직원들(전부 카이로 한인교회 교인)이 마중 나오셔서 김득룡 목사님과 저를 안내해 이연호 선교사님의 시신이 계신 이집트 육군병원으로 갔습니다. 비행장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육군 병원에 도착하여 이연호 선교사님의 시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 교우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후 이연호 선교사님이 계시던 선교관(선교관 겸 목사님이 계시던 집)으로 갔는데 동네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연립주택 2층에 선교관이 아담하게 있었는데 선교관에 들어 가니까 현지의 많은 한인교회 교우님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모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굽에 있는 한인교회 교우들 뿐 아니라 현지에 계신 많은 분들, 또 현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애굽에서 시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주일날 11시에 이 목사님께서 한인들을 위해 설교하시던 미국인 교회인 마디 커뮤니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김득룡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목사님 댁에 돌아와 보니 현지 한인교회 교인들과 현지인들은 목사님을 한국으로 운구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해 김득룡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유족들이 현지에 매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반대를 하고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있으면서 김득룡목사님의 진지하신 말씀과 처리하는 일을 보시고 현지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자기네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우리 총현교회와 김득룡 목사님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장례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장지 걱정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묻히던 묘지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미션네리 세미터리(American missionary Cemetery)라는 묘지를 애굽의 신학대학 학장님과 교수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여 그 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준비를 위해 현지인들과 한인교회 교우들과 제가 같이 나가서 모든 장례절차를 준비해 가지

고 오후 3시에 마디 커뮤니티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4시에 입관식 그 후에 장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3시 정각에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우리나라 종합상사 직원들과 사업하러 나가신 많은 분들, 그리고 포르트 싸이드란 자유 항구에 계시는 많은 한인들, 교포들과 대사님, (그전날 부임)과 애굽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기도는 마디 커뮤니티교회에 시무하시는 스탠스틸 목사님께서 설교는 카이로신학교 학장님이신 파인 아지즈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차윌공보관과 이연호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시던 사무엘 유세프라는 이집트 신학대학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많은 이집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사무엘 유세프 교수님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부터 장지에서 돌아 오셔서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축도는 엘리스 마카라는 애굽 카이로 총회 총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예배 후 육군병원에서 입관식을 하고 장지로 떠날 때 바쁘신 분들은 가시라고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애굽의 목사님들, 그리고 학장님 유세프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하관식까지 참석하시었습니다.

입관식은 김득룡목사님께서 집행하시고 4시에 출발하여 묘지에 4시반경에 도착하려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묘지옆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오셨던 그 자리가 옆에 있었고 모세가 어렸을때 교육을 받았다는 그 자리도 옆에 있었습니다. 하관에 배를 드릴때 낮모르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 계셔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스웨덴, 미국 등지의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선교관에 돌아와 다음날 17일 김득룡목사님을 모시고 1시반 비행기로 돌아 왔습니다.

이연호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피를 흘리신 분이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연호 목사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것과 정말 위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볼때 정말 이연호 선교사님의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한 경 일 장로

(당회원·해외복음선교회부회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슬픈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신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위시하여 당회원과 목사님들 그리고 해외복음선교회 회장님 이하 여러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뜻밖의 비보를 듣고 이것을 꿈으로만 돌리고 싶었던 일이지마는 위무부에 가서 보고를 보니 꿈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저희들은 참으로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지마는, 멀리 부산에 계시면서도 전화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친히 해외복음선교회 한경일 장로님과 같이 현지 카이로로 갈 수 있게 배려 해주시고 가는 동안 특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에 대해 감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이연호 목사님은 제가 부탁하기는 도미 유학을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바랐으나 토폴시럽까지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금할 수 없다고 유학을 포기한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 왔던것입니다.

선교의 길이 자기에겐 부딪히자 죽음을 각오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하여 중동지역으로 떠날 때에 저희들은 참으로 그 선교의 성공을 빌고 크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비보를 듣고 나니 이제 꿈이 다 수포로 돌아 가는 것만 같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마음 해탈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경일장로님과 같이 카이로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카이로 총회장님, 특별히 카이로의 나이비아의 총회신학교의 학장되시는 아시스박사님, 그리고 그 교수님들과의 대화중에서 참으로 이것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애굽총회가 더 깊은 유대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에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무명의 한국청년이 성지인 카이로 한복판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던 곳 옆에, 모세가 공부하던 옆 아메리칸 미션너리 새미터리 (American Missionary Cemetery)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된 것을 보니 부모된 마음으로 참 영광이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날, 애굽 총회의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전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 마디 연합교회가 꼭 차서 성대하게 장례예배를 드리게 될때 저는 참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는 구나 하면서 많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총회가, 또 총회교회가 해외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크게 보면 우리 한국 목사의 피가 헛되지 돌아 가서 되겠는가? 한편으로는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의 피가 헛되지 돌아 가서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아시스 박사님과 신학대학 학장님과 더불어 부족하나마 어린 딸이 여기에 와서 당신네 도서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딸처럼 사랑해 달라고 했을때 "무슨 말이나? 내 딸이나 다름없고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이 목사의 피는 오늘 우리 애굽 총회지도자들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 졌다. 그 씨가 뿌려졌다. 더 유대가 깊어졌다. 그 유대가 깊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뱌수 있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유대관계와 새로운 선교사업이 있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 목사의 노동 허가와 거주허가는 다시 한국 목사를 보내 대신 해야 된다고 하여 많은 위로를 또한 받았습니다.

이연호 목사라는 한사람, 한국 목사의 죽음이 헛된 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의 밀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깊은 신앙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회장님이 여기 오셔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물론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위시하여 사회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또 교계의 여러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심에 따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겨 주시니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여자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하였을때 저는 탄류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혼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한단 말이나?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말려도 "이미도 각오를 했고 내 남편의 피가 내 남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가면 되겠을니까, 아버지?" 하는 말을 팔릴 수 없어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나.

나약한 여자가 가는 걸음에 절대로 혼자서만 갈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불들림을 받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마음에 원하기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어떻게 감사와 표현을 할지 몰라서 유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 득 룡 목사 (고 이연호 목사 장인, 총회 신학대학 교수)

아프리카와 중동인의 제물이 되시어

이연호 목사님 /

제가 이연호 목사님을 처음 뵈게 되었던 곳은 불광동에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의 눈길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빨리 주님 품으로 가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전우를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 열심 있는 모습, 의를 위하여는 추호도 몸을 아끼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이치상에서 다시는 뵈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걷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달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었고 하루를 천년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에 나오셨을때 그때만해도 두달여를 체류하시면서 무려 55회나 집회를 인도하시므로 영적으로 충고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 주셨습니다. 사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조상의 무덤이나 팔아 먹고 죽은 미이라를 옮겨먹는 불쌍한 애굽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고 불을 토하듯 외치던 그 말씀 아직도 우리 귀에 쟁쟁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께서 처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숙연해 지시던 그 모습, 그때의 목사님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감돌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독살시킨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떠나 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떠나신 그날부터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 건설회사 숙소에 연금된 채 터무니 없는 위협과 조소와 냉대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밤이 되어도 발을 뻗고 누울 곳이 없어서, 식사 때가 되어도 제대로 식사를 하실 곳이 없어서, 그래도 빈혈회사에 근무하는 성도 몇사람이 자기에게 배당되는 식사를 목사님에게 갖다 주기에 간신히 시장기를 면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고난에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말이 오히려 큰 조소거리가 될까봐, 또한 말을 한다고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그 고난을 삼켜 버리고 마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결국 리야드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떠나실 때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걸음 전진을 위해서 한걸음 후퇴하여 될 자리를 살피는 것 뿐이지, 결코 중동선교는 포기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중동의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재삼 부탁을 하셨습니다. 죽어도 내가 초지를 정한 곳에 한국선교관을 중동과 아프리카를 위해 짓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년 후, 이년 후, 십년 후가 될런지 몰라도 마음과 뜻이 있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실 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목사님께서서는 믿으신대로 되시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신지 6개월 15일만인 1977년 3월12일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요새지인 카이로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한국선교사상 애굽선교를 위한 영광스러운 역사의 첫장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옛날 여호수아와 같이 하시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과 같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로 일하기가 그렇게도 힘들다고 하던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해 5월 애굽총회는 전격적으로 한국의 이연호 선교사를 애굽의 선교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래를 위하여, 애굽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애굽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직을 정식으로 맡겼습니다. 아랍권의 여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고 작은 성을 계속 점령하기 위해서 뛰어야 할텐데.....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만 맡기고 가셨습니까? 갑자기 당하는 일,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은 떨리는 것 뿐입니다.



〈애굽에서의 장례예배〉

예수님 성품을 닮으셨던 목사님

이연호 목사님!

금방이라도 나타나셔서 그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지난 주일 이 자리, 이 강단에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바울 사도의 죽을 때까지 감사하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을 말씀하시던 목사님께서 그 설교가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2년 전 카이로에 처음 오셨을 때, 이런 회교국가에 오셔서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데 어쩔려고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맹목적으로 나섰느냐고 안타까와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들을 향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한 데에서도 예수의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는대요” 하시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도 어렵겠지마는 이 땅에 죽어 묻힐 생각이면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조용히 그러면서도 자신있게 말씀하시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죽어 이 땅에 묻히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을 떠나서 영영 가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착하고 할 일 많은 이 목사님을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불러 가야만 하시는지요? 이집트 사람들을 한사람 한사람 내나라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시던 목사님이셨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돌보는 겸허한 자세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애굽 선교의 기반이 확고해지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려고 겹치고 겹쳐 펴려오던 월새없이 뛰시다가 마침내 쓰러져 순교하신 충직한 주의 종이신 이연호 목사님!

이 나라의 역사 문화 언어, 그렇게도 진지하게 열심히 배우시며 깨우치시고 게으른 우리들을 말없이 부드럽게 만드시던 이연호 목사님! 어려운 처지에서 힘든 일 하시면서도 우리들을 대할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던 목사님! 옷 한벌 제대로 못 사입으시고 이 고장에 혼한 고기마저 마음놓고 사 잡수시지 못하시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당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던 목사님! 그 성품때문에 죽는 날까지도 천천을 베풀어야 했던 목사님! 버림받아 갈데 없는 월남피난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국 사람이 돌봐야지 누가 돌 보겠느냐고 외치시며 눈물로써 기도하시던 이연호 목사님! 무척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던 이 목사님이 저희들 가슴속에 사무쳐 옵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살아 계실 때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그 사랑, 그 믿음, 그 겸손, 그 온유, 그 인내, 그 성실로써 우리들 마음속에 영영 살아계시면서 천배, 만배 열매 맺는 한알의 밀알의 역할을 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 교인대표

차 윤

(주 이집트 대사관 공보관)

그러나 목사님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읍니다. 목사님의 피는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셔서 25살에 대동 강가에서 피를 뿌려 이 민족의 제물이 된 토마스 목사와 같이, 옛날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복음을 위하여 죄 없는 죄수로 끌려가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것같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와 중동인의 제물이 되셨읍니다.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반둥에 계실 때 “나는 중동에 가서 출직히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실 심정을 말씀하시더니 기여코 피를 흘리셨구만요.

이연호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짧게 사셨으나 굵게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별처럼 빛나게 사셨읍니다. 이제 떠나가신 목사님 앞에 우리들이, 중현교회 만여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가신 목사님의 빛난 업적을 받들어 우리들도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의 명령, 이 복음사명을 중동과 아프리카에, 아시아와 유럽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대양주와 태평양에 그리고 공산권과 이북까지 아니 땅끝까지 증거하는 걸만이 목사님의 뒤를 잇는 길 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을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주후1979년 7월 25일

정 기 성 목사

(부산·대청교회시무)

개척자의 길

〈창 12:1~9〉

열대의 더운 지방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니까 감기가 걸렸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입속에 침이 마르고 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개척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중현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우리 중현교회에, 대한민국에 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들만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은혜를 받고 너희들만 편히 잘 살아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이 잘 되면 세상 모든 것도 다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기뻐서 아침부터 저녁늦게 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우러 나오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이 날로 부자가 되고 잘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개척자가 되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복음의 개척자가 되라, 우리 중현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개척자가 되라, 여러분 한분 한분을 향해서 너는 이 복음의 개척자가 되라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2. 힘들고 어려운 개척자의 길

개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척자의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나라를 이 땅 위에 넓히기 위해 이 말씀을 들고 세상 땅 끝까지 나갈 때에는 세상은 악해서 순교를 작오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현교회위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력을 주시고, 부름을 주셔서 개척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냥 가라고 내어 쫓은 것이 아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도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함은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얼마나 귀한 명령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하여 보증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말없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는 복군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거기에는 능력과 모든 것을 보증하는 도장까지 찍으셔서 보내십니다.

이와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중현의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칠백만 성도들의 심령속에 뜨거운 사랑을 물 붓듯 부어 주시어 “아멘! 나를 보내소서 세상은 흑막 가운데 어두워진 세상일지라도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가겠나이다”라고 가게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신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신 뜻아 하나님의 명령내리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가라”명령할 때에 “에”대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어떻게 개척자의 길을 감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들은 아브라함을 보

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길을 따라 갈때에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개척자의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갈 때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길을 되돌아 보고 후회하는 사람은 결코 개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척자는 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힘을 내서 가는 것이 개척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선생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자기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또 모세를 볼 것 같으면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뒤를 돌아다 보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하는 역사를 보라"고 앞만 보고 걸

어 가니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후에 찬송이 울려 나오는데 천국의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사막이라도 지칠 줄 모르고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만 보고 걸어 가야 합니다.

충현교회는 세계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세계선교를 위해 개척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문이 열려 있어도 가고, 문이 닫혀 있어도 가고, 너희는 가라, 내가 명령하는 곳에 네가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앞에 어려움이 얼마나 닥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피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험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수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그만큼 소모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를 뿌릴 때 가서는 피를 뿌려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다 깰 때요, 힘을 얻을 때요,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담당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그 순간을 예감이라도 했기에 그처럼 숨차게 뛰었던 말지요?

어찌된 일지요! 이 무슨 변이요? 사서함을 펴 채운 그 비슷한 자연들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생긴 성급한 나의 습성대로 본부의 정기 통신을 뜯었소이다. 「앗」 소리를 치고 주머니에 넣은 채로 남은 서신만을 정전도사에게 주었소. 병명도 확인되지 않은 채 6개월 간이나 진찰을 받고있는 그에게 천천히 알려 주고자 함이었소. 그런데 그가 펼쳐본 다른 서신에도 기독교신보에도 온통 이목사의 소식이었소. 멀리서 이름만 듣던 사이라면, 차라리 모르던 사이였다면, 이처럼 가슴이 저려오는 없으리라. 이목사! 교통사고가 났으면 조금 다쳤다가 일어날 일이지 그처럼 끝장을 낸단말이 뭇말이요? 꾸짖고 싶소이다. 휘둘러 허공이라도 치고 싶소이다.

열매의 과일을 먹으며 딸들을 골라 그리던 이목사 말없이 다가오는 그 순간을 예감이라도 했기에 그처럼 숨차게 뛰었던 말지요? 선교사로서의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고자 이발기술까지 익혔다던 이목사 그래서 아람에 취업중인 한국인들 틈에서 많은 전도의 기회를 가졌다고 했지요

그러나 사막에서 몇일 간 소식이 끊겨 인도베

시아까지 오게 되었고, 동부 자바에서 1주간이나 소식이 없었을때는 나도 당황하였소. 허나 이제 생각하니 타인이 알 수 없는 축급함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분명하오.

태국으로 다시 애굽으로, 거기서 정착하고 가족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고, 지난 4월 일식 귀국 소식을 듣고, 5 월에는 치료차 부인도 귀국하였다는 소식을 받았소 정말로 보이는 사역 이외에 많은 일을 담당해야 하는 선교사 부인들은 주님께서만 알아주실 끝병이 드는 것이라 생각했소.

부슬부슬 빗방울 떨어지던 남방의 새벽, 이목사는 공항으로 난 종신행무소가 있는 섬으로 순회를 나던 것이 얼굴로 맞볼 수 있는 마지막 때였구려. 하마 가고없는 이 울부짖어 무엇하며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리요! 고이 잠드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10년을 바라보는 정글에서 난 지금 좀 명쾌해진 것 같소.

서 만 수목사 (주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신숙 전도사 -

고 이연호목사 이어 애굽선교사로

중동·아프리카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일인가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일생을 주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 충성을 다 하리라고 매일매일 다짐하셨다는 김신숙 선교사님 (고 이연호선교사 사모)을 모시고 앞으로의 애굽 선교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알아 보며 여러 교우님들께 소개해 본다.

목사님의 순직에 대하여 사모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께서 3년전에 사우디로 떠나실때부터 '내가 순교할지도 모르겠으니 1년안에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떠나셨는데 그 1년간의 목사님께서는 환란의 기간에 저는 저대로 이곳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시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글도 써보고 하루에 세번씩 기도할 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생이별해야 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기로 확고히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 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하시어 2년간 같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목사님이 가시는 곳은 꼭 같이 다녔어요. 학교도 설방도 지방순회도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후 다시 애굽으로 건너 가셔서 활동하셨지요. 그러다가 비보를 들었을 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년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정 예배시에도 나는 이땅에 묻히겠다. 순교의 영광을 주시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없겠다고 하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 거도가 자신이 원하던 기도였기에 저는 그 거도대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운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른데다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깝게 지금 이렇게 하셨는가 하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자 하나

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밖에 안되는 것같다고 생각하면 비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개척자의 길을 다 갔으니 오나라 하시며 불러 가셨으니 그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괴로운 심정을 금방 잊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사님께서 소원하시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로서 활동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된 시기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교사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목사님과 결혼하면서 목사님께서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선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결혼 후 8년후에 선교사로 가셨지요. 가신후 전격적인 선교사의 자격과 사명감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떠나신 다음 1년간의 세월이 저에게 굉장한 많은 사명과 각오를 갖게 하였어요. 기도하면서 그러한 각오를 갖게 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후 목사님과 만나고 선교사업에 실지로 임하게 되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가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일생을 주님의 종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귀한 사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에 충성을 다 하리라고 매일 매일 다짐하여 왔지요. 그러면서 선교라는 것은 인간의 재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왔어요.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번에 병석에 누워 죽을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 주었는데, 그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는 내생명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생명이니 이제는 인간적인 나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몸바쳐 일해야

했다. 마음을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다졌어요. 그것을 다져 놓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확고하게 다져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보다는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종이 피땀 흘려 마련해 놓으신 터전위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비보를 듣는 순간 슬픔보다는 비장한 작오가 나 저졌어요. 그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여자의 몸이고 약하고 재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능력주의를 믿고 그것 하나 가지고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소원하셨던 길, 감사 개척자의 길을 다 가

사모님께서 선교사로서의 선교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일 먼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통한 선교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년전에 떠날때부터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도서관학을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시켜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실력있고 영력있는 교역자를 만들어 내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제가 앞으로 여러가지 책을 좀 쓰려고 계획합니다. 목사님의 걸어 오신 길과 서로 떨어져있는 동안의 서로의 편지, 그다음에 제가 어느 순간에 얼마후에 수기를 써서 한글뿐 아니라 영문으로 번역을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목사님께서 지교회로 하시다 가셨기에 학생들을 잘 키워서 지교회를 맡게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일, 네째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랍어와 영어에 숙달하여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늘 중동과 아프리카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못 다하고 가셨기에 그 뜻을 받아 제가 아프리카와 중동을 위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선교의 비전과 총현교회의 선교전략과 방법에 대해 평소 느끼셨던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애굽선교의 비전은 지금까지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믿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일을 당하면서 성경에도 있듯이 마지막때에 중동지역에 말씀이 성하신다고 하였기에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



까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한국을 통하여 복음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이 서는군요. 감복음을 주는 것은 한국 선교사뿐이에요.

총현교회의 선교부는 매우 열심이지만 한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현지에 나가서 선교활동을 하신 분이 선교전략을 세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듣고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때문에 실제 일을 해 보면서 느낀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서 선교전략을 세우면 실질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총현교회 성도님들께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특별히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의 몸이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배우의 기도가 없으면 제 자신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기에 때로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두려운 공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때마다 담대한 마음과 외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힘등 이런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는 아이들이나 저에게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째로는 애굽선교의 성공과 승리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당한 저에게 온 교우님들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애용해하시고 안타까와 하시고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코저 저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영원한 남편이시고 영원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교우님들께서 앞으로 도 기도도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대담·정리 / 고재원 집사>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김 하 진 목사

(본교회 부목사)

구약은 유대인의 생활과 사상 형성에 빛을 던졌으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아울러 초대 교회가 가졌던 윤리적 사상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신약 전체에서 발견케 된다. 특히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한 것을 생각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우리는 바울에 의하여 초대교회가 가졌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다음에는 아무도 율법아래 있지 않다 (갈 3:23-26 참조)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무법주의자(antinomian)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시말해 그는 율법이 크리스찬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서 이를 무시했다는 말일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율법이 어떤 양상(樣相)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율법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며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했다. (롬 2:25-29, 3:27-31, 4:9-12, 고전 7:18-19, 갈 5:6, 빌 3:3, 골 2:11, 3:11)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구속력, 또는 정당성마저 배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롬 13:10, 갈 5:14, 참조)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말했다.

2. 초대교회와 하나님 나라 개념과의 관계

초대교회는 당시 유행하던 유대적 묵시 사상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 영향을 받아 그 사고 방식이 종말론적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현존하는 질서가 속한 시일 내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바울 서신(롬 13:11 고전 7:29, 15:51, 살전 4:17)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히 10:25, 벧전 1:5,

4:7, 계 1:3, 22:6-7, 20)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윤리 전체가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대로 "잠정 윤리"(interim ethics)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는 과제보다 그 천국을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 이외의 신약의 주제는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 바로 그것이였다. 이렇게 신약의 천국관에 함축된 종말론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사실 신약(New Testament)이란 말은 새 언약(New Covenant)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약의 종말론과 신약의 그것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한다. 이스라엘 신앙은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통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언제나 미래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성(duality)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뿐 아니라 성경전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천국관이다 (고전 15:22, 45-49, 히 6:5, 빌 3:20, 행 3:21 참조)

이렇게 이미 와 있음과 동시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결과를 낳았다.

1) 서로 믿고 도우는 생활이 있었다.

기독교 공동 사회에서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상실한 봉사가 비교적 수준 높은 덕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일치된 양상으로 나타난 것만은 아니었다. 바울이 교회안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보고 부단히 훈계를 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으며, 하늘 나라 천국 시민도 다 분히 땅의 바탕들을 지닌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그들은 복음 전파에 놀라운 용기를 발휘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무 상통할 정도로 피차에 간절한 사랑의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행 2:44-46, 6:1-6) 이러한 복음 증거는 민주화의 기틀을 조성했고, 자연히 인간 차별이 해소되고 가로 막힌 담들이 무너졌던 것이다.

2) 예수님의 정신과 교훈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 믿음의 공동사회를 옛날 이스라엘의 공동 사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그의 왕국의 건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 공동사회에서도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것과, 성도는 그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념에 차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왕국안에 참여한 자는 장차 올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확신 속에 살았다. 그들은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즐겁게 버릴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살고 또 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베3:8) 하나 하나에게 봉사할 윤리적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실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되거나 망각되는 일이 성도들의 생활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3. 사회제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태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서 초대교회에 미친 변화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초대 교인들이 하늘의 시민, 유태교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로마제국의 백성으로 생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사회에 대해 가졌던 복음의 자세에 관하여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국가에 관하여

초대 교회 교인들은 정치적 불만을 조성하거나 집권자들에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생각을 가져 본 일은 없었다.

동시에 신약 전개를 통해 불평 전쟁을 배격한 일도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모든 인간의 권력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확고하게 선언함으로써 로마의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등의 꾀박을 받기도 했었다. 또 하나는 초대 교회 교인들은 절대적인 평화주의 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 병역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이 사랑의 복음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이기도 하다. 또한 초대 교회는 그들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때 기성 종교의 집권자들이 이를 제지하려는데서 오는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꾀박을 받기도 했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행 5:17-18, 40, 6:12, 7:58, 8:1-3, 25, 12:1-5, 16:19, 24, 17:5-8, 19:23-29, 21:27-36, 24:23, 27, 25:6-12)

2) 노동과 경제 질서에 관하여

여기에 대한 명백한 기록은 없으나 복음이 기존 질서에 들어가 살아 역사하므로 그들이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혁명의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 교인들은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바울 자신도 때로는 일을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행 18:3, 살전4:11, 살후 3:10)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특별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종래의 관습이 근본적으로 개혁된 것 두 가지가 있다.

① 모든 소유를 내어 놓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다. (행 2:43-45)

어려운 형제를 구제하는 행위가 믿음과 사랑으로 기독교 공동 사회안에서만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재물에 대한 소유욕과 독점욕에 대하여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다.

② 사회제도에 대한 중요한 도전은 노예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당시 초대 교회가 노예 제도에 대하여 정면으로 개혁을 주장한 일은 없었으나 형제애를 실천하는데 장애가 될때에는 그들 자신이 개선해 나아갔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중에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며 그에게 보낸 편지(몬17절)에 나타나 있다.

3) 가정 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어두운 면에 있어서는 성적 문란이라 하겠고, 좋은 면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부녀자의 수가 많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겠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에 비하면 많은 수치지였다. 이러한 양상은 예수님의 남녀 평등의 정신이 그리스도 공동 사회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00자 관건)

회소가치의 횡포

오 태 용

선배 중 한 사람은 독서력 개발 연구에 몰두하여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바로 책을 읽는 속도인 속독법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것은 한두 시간, 또 어떤 것은 하루 정도면 독파를 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되므로 이 젊은 교수의 사실 독서력 개발 강조는 대인기여서 시속 말로 돈 방석에 앉았다고들 한다.

이 경우 이 분의 태도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이 놀라운 속독법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뜻을 따라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보겠다는 것이 첫째요, 요즘 같이 각박한 세상, 돈이면 최고이니 이 비법과 기회를 최대에 이용하여 일확천금이나 하자는 것이 그 둘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소가치의 소유자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체이나 다 존재한다고 믿어진다. 회소가치의 정도 문제일 따름이지 또 어떤 면에선 인간은 뭔가 하나씩은 회소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아무튼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회소가치가 주어졌을까? 바로 이 집단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귀한 회소가치를 주셨을까? 라는 의문을 한번쯤 가져 깊이 묵상해 보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이다. 이 회소가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조명을 통한 우리의 이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소가치 소유자들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아람의 석유는 분명 세계적인 회소가치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은 세계 40억의 생존을 잘도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의 민생 안정에 책임 있는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의 회소가치를 선용치 못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는 요셉을 더욱 흠모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회소가치를 선한 청지기의 심정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몇몇 때문에 부흥 속에 혼란을 내포하고 있다. 이 모두는 한마디로 회소가치의 횡포이다.

창세 이후 최고의 회소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 그러나 그 분은 자기의 회소가치로 자신을 위해서만 아무 것도 안하시고 다 비워 주셨다. 그 분을 따른다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회소가치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횡포를 부릴 수 있단 말인가!

* 찬송가감상 *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치네

〈새 245, 합 186〉

김 중 석 강도사

〈성가부·산전교육부지도〉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혹시 기쁨의 종이 막 울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종하나가 아니고 여기저기 종각마다 신이 나서 마음껏 기쁨을 노래하는 종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참고 집에만 있을수없는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모두 모두의 손을 얹싸쥐고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일, 그 일이 34년전 8월15일에 있었답니다. 그때 종들이 많이 울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쿵쾅거리며 울리는 마음의 종은 필시 크게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이 되살아 나는 기쁨의 울림이었읍니다. 여기 그와 같은 되살아남의 기쁨을 노래한 찬송이 바로 「기쁜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입니다. 이곡은 얼마나 되살아 난 기쁨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어린이같이 같이 뛰노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같은 찬미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파도처럼 용솟음 치는 구원의 기쁨을 불점으로 표시하고 선율도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으면서 밝고 힘차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그 감격 기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감정은 처음 믿을 때나 나타내는 것이지 오래 믿으면 그렇게 아니야!”라는 식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생각이나 습관이 아니라 진정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외당 가슴을 꼭 채우는 감격이 있을 터이고 처음 뿐 아니라 그후에도 새로울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합니다.

작사자 쿠싱(William, O. Cushing 1823-1902)은 미국 목사로서 나이들어 반신불수가 되어 목사직을 은퇴하였을 때 루트(G. F. Root 1820~1895)가 지은 이 곡조를 듣고 너무 좋아 골몰하다가 이 찬송이 이 곡조에 꼭 들어 맞는 것을 느끼며 작사했다고 합니다.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7월에 들어온 도서 —

I. 신학도서

1. 주석류

- 1) 칼빈주석: 신약성경주석 - 로마서, 빌립보서, 칼빈著, 성서교재간행사, 1979.

2. 성 경

- 1) 어린이성경; 이거메이어, 엘시E. 지음, 이성희옮김, 보이스사, 1978
- 2) 이야기성경; 헐버트, 라이만지음, 권명달 옮김, 보이스사, 1978

3. 기독교윤리

- 1)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홈즈 말조리지음, 김의자옮김, 보이스사, 1979. 316 p
- 2)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 라하이 린지음, 보이스사, 1979.

3. 기독교교육

- 1) 진리의 말씀교육; 반하우스, 도날드지음, 배제민옮김, 보이스사, 1979
- 2) 아동 및 청소년교육의 비결; 도브슨 제임스 지음, 권명달옮김, 보이스사, 1978. 318 p
- 3) 예수님에 대한 성경공부; 스티브스 폴 지음, 박훈용옮김, 보이스사, 1978. 185 p
- 4) 네비게이토 성서교재; 네비게이토선교회지음

= 도서실소식 =

- ① “충현교회도서실안내” 발간. 지난 7월 30일 본 교회 도서실에서는 도서실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다. 크기 21cm, 132p의 이 책은 지난 5월에 편집하여 두달 남짓한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정성어린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책 안에는 도서실 개황 및 도서실안내, 도서자료의 이용방법, 도서실 운영규정 등 본 도서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하여 놓았을 뿐 아니라 본 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동서목록 및 양서목록을 수록하였다. 앞으로 도서실을 이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 M. 바운즈저 이정윤 옮김

기도의 능력

91페이지, 350원 생명의 말씀사

세월이 갈수록 촉박한 시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기대되건만 도리어 생활의 굴레바퀴속에서 빙빙 돌아보니 기도의 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이때에 마침 “기도의 능력”이란 책자를 소개하므로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문명이나 새로운 조직과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보다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왜? 성령은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도는 사람을 만들고 기도는 설교자를 만들며 기도는 목사를 만들며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역사를 이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교역자(전도자)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뛰어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드워드 페어슨”씨는 말하기를 “교역에 필요한 것은 첫째 기도요 둘째 기도요 셋째 기도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감독 고(故)데이트씨는 “나는 보다 위대하고 보다 깊고 보다 진실한 기도의 생활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넘치는 교역자만이 설교자로 하여금 영혼에 대해 참사랑을 느끼게 하는 교역자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와 같이 영혼의 진정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투쟁이요 야곱과 같이 씨름해서 이기는 기도요 주님의 그것과 같이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다. 그들의 효과적이고 간절한 기도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병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을 바쳤고 웨슬러는 매일 기도로 두시간을 시작하였다. 그를 잘 아는 한사람이 그에 대해 쓰기를 그는 그의 다른 모든 사업 보다도 기도를 더 중요시 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띠는 총명한 얼굴로 그의 기도실을 나오곤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다.

남성호 전도사(중동부지도)

* 미국에서 열린 국제단합대회를 참석하고서 *

80년 세계복음화 대회를 위한 준비로

수십개국에서 400여명이 모여



김 의 철 장로

— 4 박 5 일간, 명예시민증도 받아 —

〈 당회원 · 유치부부장
80년 세계복음화대회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1980년 8월 12~15일까지 여의도 5.16 광장에서 갖게 될 이른바 「80년 세계 복음화대회」 준비를 위한 79년 국제단합대회(6월 26~30일)에 참가하여 지난 7월 15일 무사히 귀국함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월) 밤 김포공항에는 본 교회 안윤진·김봉재·진순자·이명자 권사님과 김영남집사님 등 다섯분을 포함한 한국대표단 33명을 전송하는 교우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80년 세계복음화 대회」의 대회장이신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우리교회 교우들과 우리 일행 33명을 위해서 전송예배를 인도하시고 한분 한분, 손을 잡으시며 격려해 주시던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대한항공(KAL) 606편, 점보 747의 거대한 추진력은 밤 9시 30분 비나리는 김포 국제공항의 밤하늘을 뚫고 미국을 향하여 아나 세계복음화의 앞날을 위하여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즐거움보다 그동안 전투를 하듯 뛰여 다니던 여행수속에서 해방된 안도감이 물려 들었습니다.

초청장에 쓰여진 대회 일자가 6월 26일인데 지금 가면 대회 일자가 경과하게 되니 회의 참석이 어렵지 않느냐 하면 비자(VISA)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국이 주동이 되어 80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금번 대회에 막대한 경비를 들여놓고 출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월 25일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서 33명 전원이 비자를 받고 외

환(外換)을 하고 숨돌릴 겨를도 없이 비행기에 몸을 던져 떠나는 여행이었으므로 기내에서 한숨을 내쉬고 마치 에베레스트 산정을 정복한 알파니스트처럼 무한한 승리감에 도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역사해 주심을 믿고 눈시울 뜨겁도록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돈벌이 가는 여행도 아니고 이민간 가족을 만나 보기 위한 여행도 아니고 관광여행도 아닌 주의 복음을 위한 여행이라는 면에서 뜻뜻하고 주님과 함께 온목을 삼고 가는 여행인 듯 소망에 찼고 산송과 기도를 뒤지 않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밤 10시경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자 많은 교도들이 환영나와 하는말이 기독교회에게 감사하기 위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그린 깃발을 단 우리 일행은 교도들과 간사한 인사를 나누고 곧장 본회 산하 국제위원회가 마련한 전세 버스편으로 회의 장소인 국제 C.C.C 본부가 있는 애로우헤드 스프링스(Arrowhead Springs)로 떠나 도착하여 숙소 배정을 받은 것이 밤 11시 경이었습니다. 배정받은 숙소는 국내 어느 일류 호텔에 못지 않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애로우헤드 스프링스(Arrowhead Springs)란 글자 그대로 화살촉(Arrowhead) 온천(Springs)이란 뜻입니다. 산기슭에 화살촉 경제표는 인디언의 마음을 매혹시켰으며 이곳 온천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아픈 자와 다친 사람을 데리고 왔고 1939년 유복한 사람

들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 개장된 화살촉 온천지의 행락을 즐기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 선교회(C.C.C.)는 세계 제 2 차대전 후 미국 청년 대학생들의 퇴폐해가는 풍조를 보고 그 당시 남가주대학의 교수였던 빌브라트박사(Dr. Bill Bright)가 은혜를 받고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그 스태프(staff)만도 6,000명이 넘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 110개국에 C.C.C.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고요히 이곳 명소를 둘러 보며 산책도 하고 명상에 잠겨 보기도 했습니다. 『해발 1,000피트가 넘는 산꼭대기에는 세곳의 호수가 있고 그밑에는 온천이 있어 옛날 인디언 시절부터 이곳에서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는 곳-애로우헤드 스프링스(Arrowhead Springs)』 이곳에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화살촉에 꽃히기만 하면 나 중심의 걸음걸이는 꼬꾸라지고 샘솟듯하는 말씀의 도장에서 훈련받은 자마다 영육의 병이 완쾌되어지는 가 보다, 80년 세계복음화대회 준비를 위한 79년 국제단합대회가 이곳에서 열려 지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리라.

여호수아, 갈렘만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 갈 수 있었다. 세계선교는 주님을 맞이 할 말세 성도들의 지상과제다. 이 귀한 사명 완수가 젊은 청년 여호수아, 갈렘같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주어 졌는지 모를 일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이자 국제대학생 선교회 영구이사인 김준곤박사께서 80년 세계대회 준비 위원장이 되신 것이 그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등의 생각과 명상을 하며 지내는 되었고 또한 고요히 기도중에 새 생명 예수 한국 총력운동과 80년 세계복음화 대회를 위한 준비에 그 한 모퉁이를 맡은 놀라운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4박 5일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매일밤 400명 이상 모였는데 강사로 빌브라트박사 김준곤박사, 미국에서 25,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주크 스미스 목사, 그리고 황재경 목사가 주강사였고 한국대학생선교회 기획실장 박영을 간사와 교육담당 이상규간사의 제자화를 위한 전도훈련은 많은 감명을 주었고, 또 여러 교회에 초청되어 전도훈련을 위한 집회를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가신 목사님들께서는 각 교회에 초청을 받고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단지 유감된 일의 하나는 명색이 국제단합대회라 하면 수십개국의 기독교대표들이 참여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아쉬워했으나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대화를 통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행동하며 느낀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염원하는 세계 복음화는 먼저 1) 새 생명예수 한국총력전도 운동을 통하여 먼저 민족 복음화가 되어 교과사이의 담이 무너



〈일행이 묵었던 호텔〉

지고 2) 북한 선교와 남북통일의 축복으로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져 3) 동남아시아, 중공복음화가 이루어지고 4) 중동, 아프리카 복음화의 열기가 뿜어 나갈 때 5) 공산권 지하교회 복음선교와 아울러 6) 드디어 유럽과 미주도 기독교의 형님 나라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겸손으로 바뀌어지며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역수출되어 시들어져 가는 세계교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회 일정이 끝나고 미국 동, 서, 북부와 캐나다를 돌면서 한인교회들이 날로 날로 성장되고 있음을 보았는데 그동안 많은 부흥사들이 헌금을 거두워만 가는 좋지 못한 인상이 교포 교인들에게 있음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렸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한국 C.C.C. 출신으로 구성된 나사렛형제회의 저녁 초대 모임에서 약 50명이 모여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자리에서 80년 세계복음화 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준곤 목사는 미국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와 미국에 있는 2 세들이 80년 대회때는 조국순례 대행진을 하며 입국하여 훈련을 받고 참다운 조국의 상을 가지고 제 2의 청교도적인 사명으로 미국을 복음화하자고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미단 임원 일동은 산버나디노(San Bernardino) 시의 밥(Bob) 시장의 초청으로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는데 금번 국제대회의 취지와 성격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미국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은 잊지 못할 일입니다.

내년에 가릴 30년만 세계복음화대회는 매일밤 200 만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로서 수만명의 세계 각국 성도들이 한국으로 오고 따라서 말세에 세계 복음화의 기록제가 되는 놀라운 대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아울러 현재 700만의 한국 크리스찬이 80년 대회를 통하여 1,000만을 돌파하여 멀지 아니하여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 지도록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앞장 서서 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61 : 1

기도자의 심정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기도할 때 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였읍니다. 부르짖음이란 말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빌었읍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는 말은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니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배움시다.

시 61 : 2~4

기도자의 처지와 내용

『내 마음이 놀랄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하게 된 처지는, 근심 걱정 분노에 쌓일 때 즉 마음이 놀랄 때, 큰 산이 나태내려 덮듯이 덮혀 올 때, 큰 세력이 궁궐을 점령하고 추격하여 따르니, 아들과 신하가 반역을 하니, 이렇게 어려운 처지이며, 궁궐에 못가고 성전에 못가게 된 처지였읍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소서, 원수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난국을 당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피할 수도 없고 돌아 갈 수도 없고 삼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품안에서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조차 못할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밀턴은 45세에 소경으로서 실락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으며, 조지 메디슨과 윌리엄 윌포드

도 소경이 된 후에 유명한 찬송을 지었으며, 영락교회의 한경직목사도 폐가 약하므로 큰 목회자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난관에서 낙심하지 마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처럼 약하고 못나고 불의한 자라도 인간이 꿈도 못꿀 높은 보좌위에 올려 놓으십니다. 에스다가 황후가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 된것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을 믿고 낙심 말고 기도에 힘쓰시다.

시 61 : 5~6

감사와 소망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쫓기어 다니던 자기의 기도, 땅끝까지 쫓기던 자기의 기도,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던 자기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니 주의 이름을 바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던 자의 발은 복을 부족한 저에게 다시 주었사오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성도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는 자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더 큰 복을 받을 자이오니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받은 복도 헛고 앞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걸계 하시고 자자손손에게까지 계승케 하실 줄을 다윗은 믿었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 불변하십니다. 약속하신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는 생활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삽시다.

시 61 : 7~8

부탁과 결심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부족하지만, 구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영원까지 있게 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시어 계속하여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육신뿐만아니라 영혼까지, 금생뿐만아니라 내세까지, 인자와 진리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모든 소원을 들어 주시면 나도 주의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으며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실행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다윗처럼 인자와 진리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할 것을 결심하는 올바른 삶을 삽시다.

농어촌 파송전도 - 총 9 대의 54명

지교회 중점 파송 전도

79년도 농어촌 파송전도가 지난 8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실시 됐다. 총 9대의 54명이 참여하여 실시하게 된 금번 전도대는 이사야서 6장 8절의 주제 성구에 입각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하에 중현교회 지교회를 중점적 대상으로 하여 전도대를 파송하였다.

1972년 「농어촌봉사대」가 「농어촌전도대」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우리교회는 나아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농어촌교회 지도자 교역자의 훈련을 절감하고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 훈련」과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전도대 파송의 특이한 점은 지난 해까지는 농어촌교회자초청훈련시 훈련청원서와 전도대파송 청원서를 받아 훈련받은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중에서 선정, 그지역을 정하는 농어촌교회와 상호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을 채택했었지만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중현 교회 지교회 자립에 역점을 두어

촉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전도대파송의 특색과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전도대 파송의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전도대원 훈련을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였다. 강사로는 전도의 사명과 자세(김창인 목사) 개인 전도법(김영휘 전도사), 이교도에 대한전도(이양우 전도사), 농어촌 전도안내(김종택 목사)기도회(이성봉 목사)로 구성된 전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전도대는 해당지역의 진주민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결신시키고, 해당교회 교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며 전도시범을 보이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세우고 새벽기도회, 대원조례, 전도활동, 저녁 부흥회등으로 하루 생활을 진행해 나갔다.

강사(지도 교역자), 대장, 대원 4명으로 구성된 본 전도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79년도 농어촌전도대 편성표

대	파송교회	파 송 지 역	교역자	대장	대원
1	신현교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성봉	김희수	유창무, 박정숙, 이인실, 유요안나
2	석현교회	강원 인제 기린면	유재일	한용관	정금숙, 김경림, 홍성옥, 이동균
3	부연교회	강원도 인제군 남원부령	김석원	오영중	허소이, 김정자, 김순화, 이재식
4	매현교회	충북 단양 매포 경동	남성호	김은태	김옥영, 남명숙, 이은순, 최복순 이근수
5	금현교회	경기 여주 북내 외동	윤형철	양명진	이해봉, 조순자, 한철이, 김화자
6	장락교회	경기 가평 설악 미사	김영휘	이종연	문옥희, 박양석, 김윤희, 김선자
7	의향교회	충남 서산 소원 외향	안석현	한상배	김정배, 정숙자, 한용관, 김순옥
8	광선교회	경북 의성 우산 신흥	이준교	한준기	송양원, 김유순, 김영배, 김영옥
9	송경교회	경남 함양 명곡 송경	성주진	이상원	박수경, 김금옥, 장영자, 김은숙

7 월지교회 현황표

자원부서	교 회 명	교역자 명	위치	교인수		현 금		비 고
				6 월	7 월	6 월	7 월	
전도위원회	태 평 중 앙	조우연	충남대전	69		182,990		성전건축착공
전도위원회	화 정	강대희	경남의령	24		181,925		
전도위원회	영 광	김성환	경기성남	23	18	74,250	87,410	
전도위원회	육 군 본 부	최용범	육 본	29	72			무의탁사병위로회 총13회 실시 (610명)
남 전도회	장 락	정기용	경기가평	20	23	26,475	48,675	
남 전도회	금 현	원치연	경기여주	12	13	45,900	64,120	
남 전도회	서 현	박창덕	강원인제	5	15	23,395	52,925	
여 전도회	광 영	최동호	경기시흥	85		127,015		
여 전도회	매 현	김요석	충북매포	31	36	135,175	198,735	성전건축착공
여 전도회	강남시립병원	신윤희	강 남 구	24				
청 년 부	신 현	강성철	강원정선	15	20	54,350	48,090	
이 육녀부	현	최봉철	강원인제	15	25	69,030	79,650	

불이 꺼지지 않는 제 단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매일 철야기도회

◇◇◇.....구역권찰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구역단위의 철야기도회를 시작했.....◇◇◇
 ◇◇◇.....다. 170개 전 구역을 담당창로가 맡고 있는 구역(3-5개구역)◇◇◇
 ◇◇◇.....별로 순번에 따라 매일 저녁10시에 해당구역원이 모두 모여 철야.....◇◇◇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할 일 많은 교회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쌓아 놓고 이 구역철.....◇◇◇
 ◇◇◇.....야기도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구역권찰◇◇◇
 ◇◇◇.....회회장 김재창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구역단위 철야 기도회를 1979년 8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의의와 방법등을 올바르게 알고 모두가 참여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교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면 좋겠다.

1. 성경적 의의

1) 제사장적 사명의 뜻

레위기 6장 12·13절에 “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 지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구약시대 성전 제단위에 불은 계속하여 피워야 하고 계속 타 오르고 있어야 했던 것 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또한 기도의 불이 계속 피워 있어야 한다. 엘리제사장 당시 교회가 타락하여 어두워 가는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 하였으며” (삼상 3 : 3) 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출생하시기전 매우 암흑한 시대에도 사가랴제사장은 반열의 차례를 따라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눅 1 : 8-10)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앞에 기도하는 제사장 직무는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데 일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 (벧전 2 : 9) 적인 사명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한다. 만일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진다면 교회도 나라도 망하고 말 것이다.

2) 파수군의 사명의 뜻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군으로 세웠으니”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라 하였고 또 22절에는 “밤에는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또 느헤미야 7장 3절에는 “에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저집 맞은 편을 지키게 하라”고 하였다.

일선에서 국군 장병들의 불침번의 책임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불침번의 책임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기도의 불침번에 의해서 교회와 나라도 건재하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따라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시 4 : 8) 이제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영적 불침번 근무가 계속되어야 한다.

2. 교회사적 의의

1) 교회부흥의 원동력이 기도였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해 힘쓰니라”고 하였으며 또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초대 에루살렘 교회가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기도가 계속 될때에 교회는 불꽃이 활활 타 오르는 것 처럼 왕성하게 되었고 더욱 넓게 퍼져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때도 있었다. (행 2 : 42, 46, 47)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어떤나라, 어느교회든지 뒤지지 않는 기도가 계속 될 때에 그 기도회에 의해서만 비로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 교회적으로 당연한 사명 수행을 위하여 기도는 불가결의 필수 요건이다.

우리 교회는 시대적 사명 곧 5가지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 ① 새 성전 건축
- ② 천국일꾼 양성
- ③ 세례성교사업
- ④ 북한선교사업
- ⑤ 민족복음화

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 크고 많은 일들은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의 합심 기도없이 는 결코 해 낼 수 없는 일들임에 틀림 없다.

3. 모이는 방법

1) 매일 저녁 정해진 계획표에 의거 각 구역이 저녁 10시에 모여 찬송·기도·성경·간증등의 순서로 진행되되 12시 이후에는 자유기도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2) 구역담당 장로 위주로 편성된 협력구역 단위로 모인다.

3) 구역을 담당하신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찬 여러분은 출석수범하여 구역원을 동원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달마다 모이는 교회 전체기도회와 수시로 각 기관 기도회가 겹칠 때는 형편에 따라 연합으로 할 수도 있다.

5) 철야기도회는 남·여교역자(주교지도, 부지도포함)가 윤번으로 담당 통하게 한다.

4. 편성내용과 실시규정

- 4) 현 구역담당 장로를 기준으로 편성함.
- 2) 결한된 고이창준장로와 지금산장로 후임으로 고병욱·심현상장로를 충원함.
- 3) 황창룡·김영삼장로 담당구역에는 유기전·손동운장로로 겸임케 함.
- 4) 기존의 연합구역에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구역단위로 만들었음.
- 5) 교회에서 철야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담당장로와 각 구역담당 권사, 각 구역장, 그리고 모든 권찬들은 출석수범하고 구역원을 동원하는 책임을 진다.
- 7) 철야기도회는 남·여교역자가 (주교 지도부지도 포함)가 윤번으로 인도한다.
- 8) 교회 전체 철야기도회와 각 기관기도회가 겹칠 때는 연합으로 할 수도 있다.

구역단위 철야기도회 순번일람표

순번	구 역 단 위	당번장로	소집책임
1	상제, 도봉1, 2 동 장동	한 경 일	각구역장
2	수유, 우이1, 2 반동	최 성 립	각구역장
3	삼양1, 2, 3	한 명 옥	각구역장
4	장위1, 2 미아1, 2 월곡	김 방 진	각구역장
5	길음, 성능, 종암, 안암	위 영 환	각구역장
6	돈암, 보문, 삼선, 동소문, 설봉	김 창 배	각구역장
7	성왕1, 2 송인1, 2 창신1, 2	최 석 주	각구역장
8	동승, 연건, 동대문	홍 중 섭	각구역장
9	암사, 천호, 종남, 종곡1, 2	윤 명 식	각구역장
10	구이, 문자, 송정	오 대 희	각구역장
11	면목1, 2 태능, 중화	윤 용 규	각구역장
12	망우, 전농, 답 익리 이문/취경	김 은 호	각구역장
13	마장, 홍의, 행당, 왕십리	김 종 식	각구역장
14	홍인1, 2 문화	황창룡유기전	각구역장
15	신당1, 2 광화문, 강릉1	정 석 태	각구역장
16	쌍림1, 2 목정1, 2	이 태 규	각구역장
17	성남, 잠실1, 2, 3, 4	박 창 수	각구역장
18	도곡1, 2 선정1, 2	윤 중 성	각구역장
19	삼성, 감남1, 2 성당1	윤 중 순	각구역장
20	성당2, 논현1, 2 압구정	일 광 식	각구역장
21	자양, 화양, 성수	우 성 원	각구역장
22	이태원, 보광, 한남, 옥수1, 2	신 영 대	각구역장
23	응봉, 금호, 청구, 약수1	장 순 용	각구역장
24	약수2, 강릉2, 3, 4	김 기 정	각구역장
25	시흥/신길, 신림1, 2 대방	김 자 생	각구역장
26	불천1, 2 관악, 사당	조 현 명	각구역장
27	상도1, 2 방배	김영삼손동운	각구역장
28	만포1, 2 여의도1, 2	이 동 규	각구역장
29	서강, 염리, 마포, 이촌	전 희 문	각구역장
30	용문, 청과, 용산, 후암	고 병 옥	각구역장
31	치현, 원동1, 2, 3	이 응 선	각구역장
32	인현1, 2 진양, 화원	김 의 원	각구역장
33	오류, 개봉, 화곡1, 2, 3	김 한 울	각구역장
34	구로, 문래, 망원, 서교	오 승 울	각구역장
35	동교, 신촌, 연희, 남가좌	마 성 략	각구역장
36	북가좌, 용암1, 2	황 기 성	각구역장
37	역촌1, 2 갈현/불광	김 영 개	각구역장
38	홍제, 가회, 종로	송 순 일	각구역장
39	서대문1, 2 청운, 효자	조 선 근	각구역장
40	을지2, 중부, 중무1, 2	이 원 철	각구역장
41	목정1, 2	김 경 철	각구역장
42	광희1, 2	노 광 현	각구역장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

이연호선교사의 순직을 애호한다는 통보가 옴.

홍 콩 - 홍 중 만 선교사

1. 선교회 "에이시안 아우트릿치"를 방문하여 중국 대륙에 성경보내는 문제 협의
2. 선교회 "차이나 리서치센터"를 방문하여 중국선교문제를 협의
3. 영영택목사를 방문하여 구룡에 중국인 교회개척과 마카오에 중국인 교회개척 문제를 협의
4. 여름성경학교 실시 (1979. 7. 16~21)
5. 인도네시아 서선교사님께 선교현금 \$ 210 송금
6. 대 중국선교방송비 보조액 H\$ 300 선교기관에 송금
7. 보르네인한인교회에서 중국선교비조로 V\$ 200 보내오다.
8. 한국오메가교회에 선교비 H\$ 1,000 송금

기도제목

1. 홍콩한인교회의 중국선교 준비를 위해

애 굽 - 김 신 숙 선교사

1. 이연호선교사께서 7월 11일 알렉산드리아 근교에서 개최되는 애굽, 수단 양국의 합동지도자회의에 초빙을 받아 카이로를 출발하여 알렉산드리아를 향하여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순직함. 이선교사의 유해는 평소의 자신과 유가족의 원에 따라 애굽 현지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의 공동묘지에 7월 16일 장례를 거행하고, 본 교회에서는 7월 25일 추도에배를 드림.
2. 7월 25일 추도에배시 고 이연호선교사의 사모이신 김신숙전도사를 애굽주재선교사로 임명하고 8월 6일 현지로 파송하다.
3. 7월 30일 정기당회에서는 고 이연호선교사의 후임으로 인도네시아선교사 후보였던 이준교강도사를 결정하고, 9월 말까지 출국수속 완료되는 대로 파송할 계획을 세움, 따라서 인도네시아 후보자는 선교현황의 어려움으로 잠정적으로 보류되다.

기도 제목

1. 김신숙선교사님과 세 딸을 위해
2. 애굽후임자의 준비를 위해



▷원불교 신자인 권여사는 전도해 주님께 인도한 유병세집사(한복입은 사람이 권여사임)

선교월보

서 독-육 호기 선교사

1. 비스바덴에서 약 80km 떨어진「하나우」에서 순회 예배를 드린다.
2. 비스바덴한인교회의 현황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거나, 미국이민, 또는 휴가차 여행과 한국에 일시 귀국하는 수가 많아 교인 출석수가 20-30명으로 줄었습니다.
3. 뷔츠부룩 한인교회의 현황
이달의 부흥목표대로 50명선을 넘는 놀라운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4. 평신도 수양회를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나움부룩 실로쓰에서 가질 예정이다.
5. 고이연호선교사조위금 DM 200송금.

기도 제목

교회부흥과 선교사님의 건강과 장거리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호 주-김 태현 선교사

기도 제목

교회부흥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아르헨티나-백 성룡 선교사

7월 25일 총회주관으로 본 교회 백성룡목사를 아르헨티나주재 선교사로 파송하다. 사모님과 3 자녀를 함께 동행함.



▷유병세집사의 사모 이윤호권사가 이끄는 여성도 성경공부반의 반원과 함께

일 본-유 병세 평신도선교사

1. 전도의 열매인 송전간호원, 중천기사, 고교생 6명, 권여사등 교회 출석함.
2. 이권사 부인성경반 인도.
3. 병원환자에게 전도하여 1명 결신.
4. 대합실 전도 및 가두전도 실시함.
5. 유선교사 내외분 휴양차 7월 28일 일시 귀국하여 유선교사님은 8월 18일 임지로 다시 출발.

기도 제목

1. 유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과 능력을 위해.
2. 전도의 많은 열매를 위해

서 독-박 용삼 평신도선교사

1. 7월 21일까지 여름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감.
2. 여름방학기간동안 학위논문 쓰는 일과 연구에 열중할 계획임.

기도 제목

박선교사의 논문과정을 위하여

선교 본부-해외복음선교회

1. 하기선교훈련을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여 45명이 사명에 대한 재결심을 가짐.
2. 김영휘전도사는 선교시찰 및 연수차 9월 말 혹은 10월 초 홍콩과 동남아시아 및 나라를 약 2개월간 순방할 예정임.

성경통신 7월호

모범 답안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나	36	라
2	○	37	모리아, 다윗
3	유다	38	가
4	예루살렘	39	라
5	나	40	가
6	야베스	41	7:14
7	×	42	라
8	여호수아	43	다
9	○	44	나
10	가	45	변하지 않는 언약
11	9:33	46	라
12	다	47	다
13	라	48	악, 여호와
14	라	49	20:5-13
15	나	50	언약
16	가	51	×
17	다	52	다
18	라	53	디글랏벨레셀
19	나	54	25세
20	히람	55	나
21	나	56	앗수르왕
22	16:26	57	율법책
23	다윗 나단	58	1월14일
24	×	59	70년
25	소박	60	나
26	나	61	세스바살
27	베냐민	62	하나님의 단을 쌓음
28	가	63	연구, 준행
29	다윗, 솔로몬	64	×
30	○	65	○
31	다	66	다
32	288	67	52일
33	사독	68	9:15
34	나	69	12:43
35	28:5	70	안식일 법한 죄

7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1 지구

도봉②구역	김현숙	도봉구 쌍문동36-72 19/2
시 외 구역	손정숙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136 2
장위①구역	강경옥	성북구 월계동 243번지
삼양③구역	인용임	도봉구 미아 2동 762-3
동송구역	정기숙	종로구 동송동 동송APT 12동111호
동송구역	조규학	종로구 동송동 동송APT 19동지하 2호
미아②구역	신일순	도봉구 미아 2동 75
창동구역	민경신	도봉구 창동 15-14 10/3
절량①구역	신경숙	동대문구 용두동 1가 39-519 25/2
종암구역	김용우	성북구 종암동 114-30 21/4
삼양③구역	전명식	도봉구 미아 8동 734-174
우이②구역	류요안나	도봉구 미아 2동 791-245 26/1
창동구역	김현숙	도봉구 쌍문동 36-72 14/8

제 2 지구

왕십리구역	이봉희	성동구 하왕십리 2동 969-6
취경구역	강태련	동대문구 회경동 308-58
왕십리구역	임정숙	성동구 하왕 2동 889-5
신당②구역	오경희	중구 광희 2동 71번지
종곡②구역	유영자	중구 신당 2동 392-29
종곡②구역	김광백	성동구 도선동 196번지
마장구역	배상수	천호 1동 210-11
천호구역	안양순	동대문구 면목 3동 496-6
면목②구역	고양호	중구 장충동 2가 133
면목②구역	최재혁	중구 광희동 2가 231
쌍림②구역	이영숙	중구 장충동 2가 133
광희문구역	김선일	중구 광희동 2가 231
신당②구역	정춘화	중구 신당동 233-52
종화구역	김인석	동대문구 목동77-12
신당①구역	김준이	중구 신당 2동 386-91

제 3 지구

강남②구역	김명현	용산구 보광동 265-256 26/1
도곡①구역	김정미	강남구 대치동 304-8 22/5
약수②구역	김일교	중구 신당 2동 432-538 18/1
화양구역	고일환	성동구 화양동 5-106 18/1
압구정구역	조성숙	강남구 신사동 277-4

잠실④구역 최선화 강남구 오금동 396 19/1
 잠실②구역 김명홍 강남구 잠실동 5단지 509 십자한의원
 도곡①구역 박영희 강남구 대치동 청일 APT 2-1006
 자양구역 편윤식 성동구 자양1동 349-6 24/13
 이태원구역 전효준 용산구 이태원동 261 23/8

제 4 지구

여의①구역 김은자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케이트95호
 상도②구역 박희준 관악구 본동 298번지26/3
 랑배구역 김선미 관악구 흑석동 79-27
 대방구역 박은희 관악구 대방1동 349-20 12/3
 진영구역 임승자 중구 충무로4가 125-1 진영3동 1061호
 시흥구역 김선남 영등포구 시흥동93 8/4
 인현①구역 김동철 중구 충무로4가 147
 화원구역 이윤자 중구 충무로4가 94
 친양구역 이형래 중구 인현2가 192-30 신성APT 818호
 신길구역 박병채 영등포구 도림1동 77-104 3/5

제 5 지구

중부지역 홍사무 중구 오장동 14-4 25/2
 화곡②구역 장병철 중구 충림동 326번지
 서대문②구역 박철환 강남구 등촌동 366-14
 을지②구역 김정자 중구 주교동 275-2 16/5
 흥제구역 김재윤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APT 3동 203
 중무①구역 이행자 중구 오장동 206-24
 중부구역 고윤자 중구 오장동 537 서울공업사
 개봉구역 유종상 경기도 시흥군 서면 제일APT 7동 401호
 서대문⑦구역 이상희 중구 의주로1가 25-7 11/6

* 축하합니다 (7월중 결혼)

최규원양 (치혁도씨, 장희자직사딸) / 7일 오후2시 을지예식장
 김영호군 (김선운권사아들) / 17일 오후2시 본교회당에서
 김성호군(김장인목사3남), 김숙지양 / 30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위로드립니다(7월중 별세)

이연호선교사 / 11일, 애급카이로에서, 16일 현지에서 장례
 박정조씨(개봉구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고병남씨(중남②구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구역권찰회 인사이동

1. 구역담당장로 보임

①고이창준장로 후임으로 고병욱장로(용문, 청파

* 권찰수첩 ⑦ *

예배모범(5)

김재창 목사

(구역권찰회 회장)

제15장 은밀기도와 가정예배

1. 교회안에서 공식예배를 보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지 못할 당연한 본분이다.

2. 은밀기도는 우리 주께서 명백히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펴 볼지니 이와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유익이 많은것을 증명한다.

3. 가정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4. 인도하는 이는 이 직분을 거행하되 마땅히 주의하여 모든 권속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보통 사무를 중지하고 엄숙히 예배하되 기도하며 찬송할 때와 같이 조심한다.

5. 인도하는 이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그 자녀와 집사람을 가르치고 적당한 기회를 얻는 대로 이일을 힘 쓸지니 그러므로 주 일에는 구제할 목적이나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벗을 심방하거나 손님을 청하는 등 방해되는 행사를 일절 금한다.

※ 구역장수첩은 필자의 요청에 의해 권찰수첩으로 바꿉니다.

용산, 후암)

②지금산장로후임으로 신현상장로(혜화, 명륜, 초동, 을①)

③목정1. 2 구역-김경철장로

④광희1. 2 구역-노광현장로

⑤우기전장로는 황창룡장로와 결임

⑥손동운장로는 김영삼장로와 결임

2. 망원구역 권찰 증선-한혜원 집사

교육위원회,

새해 사업계획 착수

장기 교사훈련계획도 구상중

교육위원회는 8월 말로 1979년 제철학교(여름) 행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곧이어 1980년도 사업계획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새해는 교회 전체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범위가 확장됨으로 업무도 대폭 늘어 조직, 사업, 예산등 여러면에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는데 먼저 교육위원회 조직의 구체적인 윤곽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새해 사업계획 착수에 앞서 주일

학교 각부에 대한 교육평가와 아울러 종합행정감사, 특별회계감사등이 실시되고 이러한 감사와 결과를 토대로 새해의 사업계획 방침과 예산편성방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이와같은 교육위원회의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지금부터 각부별로 새해 사업계획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데 새해 각부별 주요교육방침과 실행목표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이미 당회장 목사님에게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각부가 지금부터 준

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각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걸쳐 미비된점이 없도록 특별 사무검열등을 통하여 정비하되 특히 유의할 사항들로는 ① 학습결과와 평가관계 - 학습결과평가, 각종 교사훈련결과와 평가, 각종 학생훈련결과와 평가 ② 인사관계 - 교사기록카드, 학생생활기록카드, 교사학생출결관계 ③ 재정관계 - 회계장부, 시산표, 증빙서류, 세입, 세출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④ 비품관계 - 각종 학습보조교재 및 시청각교재, 사무용비품, 각종식재고관계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행정·회계 감사일정과 구체적인 감사내용이 각부별로 통보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교사자질향상을 위한 장단기 교사훈련계획안도 작성중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이를 새해부터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교사·학생 출석동향

• 교사

6월중 교사 재적수는 전달인 5월 교사 재적수 464명 보다 7명이 증가한 471명이었다. 이를 금년 1월의 교사 재적수 455명에 비교한다면 16명이 증가한 것으로 3.5%가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연초에 비해 16명이 증가한 것이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신규입명 교사가 모두 55명에 퇴임교사는 39명으로써 실제 교사이동수는 94명으로 6월말 현재 471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교사가 신입교사로 주일학교 전반적인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

여러가지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년을 비추어보면 대략 200여명 정도의 신규입명 또는 퇴임의 교사이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교사이동의 빈도와 실제적인 숫자를 낮추는 문제가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 학생

6월말 현재 우리교회 주일학교 학생 총재적수는 4,398명이다. 이는 5월말의 4339명보다 59명이 증가된 것이다. 하지만 5월 전체 출석율이 68%에 비해 6월 전체 출석율도 68%로서 실제적인 내용면에서는 30명밖에 출석의 증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례적인 월별 학생출석 성향을 보면 아주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는 출석 그래프가 하향하고 있지만 가을이 되면 점차 상승하여 연말인 12월에 이르러 피크를 이룬다.

그러므로 6월에 비해 7월, 8월에는 좀더 학생의 출석이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것은 주기적인 것으로 예외적인 다른 요인이 없는 한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본다.

6월중 출석동향을 주교 각부별로 보면 전월에 비해 유치부·유년부·초등부·노년부등의 출석율이 향상되었고 고등부·대학부 청년부·산업전도교육부·새가정부 등의 출석율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급한 시청각교재의 현황파악과 정비

학습용 인형극 사용에 신중토록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체계있게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지만 최근 우리교회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특히 시청각교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시청각교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시청각교재나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청각교재가 과연 학습효과증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확실한 대답을 듣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청각교재가 교과과정에 준한 전체적인 학습효과를 겨냥한 것이기 보다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피교육자의 흥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시청각

교재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시청각교재를 사용함으로써 피교육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본문의 참뜻이 어떤 이미지를 형성시켜주는 데 있어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성경중 어떤 특정한 인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림이나 인형등을 완전히 구체화 된 형체를 뇌리에 찍어주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염려에서 지난 7월 교육위원회 월례회에서는 앞으로 학습용 인형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을 기해 사용토록 할 것을 재확인 했고 영상매체를 통한 것이나 인형을 통한 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현재 주교각부서에 각부가 산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시청각 교재의

7월 주교 인사이동

• 지도교역자 초빙

선교부 부지도 조준상(남)

• 교사임명

영아부: 박덕양(남) 임시교사

한광조(남) 임시교사

장정남(여) 임시교사

현병애(여) 임시교사

유년부: 최무길(남) 정교사

장년새신자부: 허인숙(여) 정교사

중등부: 허일주(남) 임시교사

• 교사퇴임

유년부: 강충구(남) 정교사

박선희(여) 정교사

장년새신자부: 이창준(남) 정교사

중등부: 선우섭(남) 정교사

김승옥(여) 정교사

고등부: 오신숙(여) 정교사

홍순희(여) 정교사

• 반주자 임명

유년부 반주: 임춘자(여) 정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각부가 서로 유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며 필요한 시청각 교재는 점차적으로 보충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새가정부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강

올해 처음 시작된 주일학교 새가정부에서는 그간 신혼부부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갖가지 유익한 강의를 마련하여 항상 들어볼 만한 강의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새가정을 위한 특강을 계획하고 이름 있는 외래 강사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8월 26일에는 「새가정의 구강위생」,

9월 9일에는 「새가정의 소아간호」

9월 9일에는 「새가정의 유아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다.

현재 새가정부는 40여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매주일 오후 4시부터 별관 2층 유모실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특강기회에 미혼남녀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새가정부에서는 부탁하고 있다.

주일학교 선교부

제2학기 학생모집

교과목: 1. 기독교 선교역사
2. 선교관점에서 본 이사야연구

개강: 장년반 - 9월 2일 오후 1시 40분 당회실
대청반 - 9월 7일 오후 7시 당회실
중고등반 - 9월 8일 오후 7시 당회실

마감: 9월 2일

접수: 해외복음선교회 사무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내년도 교회조직 전면 개편

교회는 현재 교회조직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교회의 조직기구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9개 기관이 당회장 직속하에 수평적으로 분류, 조직되므로 인해 전체를 지휘, 통솔하기가 어렵고 같은 성질의 기관이 같은 급에 놓여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2중, 3 중으로 보직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교회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단안을 내린 것이다.

새로 개편되는 교회의 조직은 기능별로 나뉘어진 2 위원(감사

위원, 인사위원) 2 국(사무국, 출판국) 7 위원회(예배·전도·교육·심방·재정·건축·자산관리위원회)로 이루어 지게 된다.

7 위원회 안에 현재의 조직이 모두 포함되는데 예배위원회에는 성가부와, 기도원관리위원회가 전도위원회에는 남·여 전도회, 국내전도, 해외복음선교회, 산업전도회가, 교육위원회에는 15부주일학교와 장학위원회, 도서관, 성경학원이 심방위원회에는 권사회와 169개 구역이 자산관리위원회에는 총현동산과 재단관리의 조직이 합쳐지게 된다.

교회의 주요 기능별로 조직되는 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회계, 서기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교역자나 당회

원중에서 되며 각 위원은 당회원이 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집사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주교부장을 집사로

또한 당회장은 해당 분야의 보고를 위원장을 통해 직접 받고 직접 확인토록 해 당회장이 교회 전체를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회원들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각부 부장을 집사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9일 모인 당회에서 조직 개편을 결정하고 이에따른 위원선정문제와 세부사항을 위해 11인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했다.

교회 장소 일부 재배치

당회는 지난 8월 13일 임시당회에서 교회장소일부를 재배치 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일은 전 김재창 목사의 사택이 비게 됨에 따라 몇개의 방이 사용가능케 됨으로 취해진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 김재창 목사 사택 1층 - 당회장 유계실, 노년부, 초등부(앞이때 집사), 유년부를 배치하였고 2층 - 회의실 및 분반공부실, 재단법인총현동산, 영아부, 새가정부, 선교부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전도위원회 자리로는 인쇄실이 옮겨지며 전 주교종합사무실 자리로는 전도위원회와 해외복음선교회가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 사무부에서는 이같이 당회의 위임에 따라 장소를 배치 하였지만 아직도 필요 면적수에 너무도 부족하므로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 서로 협력하

여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1. 교회의 모든 장소는 2개부 이상이 함께 사용하여야 될 형편이므로 타부의 분반공부나 회의 등을 위하여 요청이 있을지는 가능한 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2. 특히 전 김재창 목사 사택은 교회소유건물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를 임대한 것이므로 일체의 건물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부흥회, 기도원에서

교회는 오는 9월 11-15일까지 5일간 총현기도원에서 주계 부흥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장사는 신용산교회에 사무하시는 정문호 목사로 정했다. 기도도 준비하며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경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현장에서

매일 새벽기도회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계성 장로)는 총현동 새 성전 건축 현장에 기도실을 마련하고 교우들이 언제나 자유로 찾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초순부터 마련된 이 기도실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보다 절실하게 기도하고자 현장에 마련하게 된것인데 매일 새벽 5시에 정상우목사의 인도로 새벽기도회가 도이며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심방 1년에 1 회로

매년 1년에 봄·가을 2회에 걸쳐 전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던 대심방을 연 1회 실시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다. 따라서 금년 가을의 대심방부터 절로 가을 대심방은 안하게 된다.

애굽선교사 -

이준교강도사로

당회는 지난 7월11일 애굽 현지에서 순직한 고이연호선교사의 후임으로 이준교강도사를 파송기로 결정했다. 이준교강도사는 총신 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 부지도, 청년부 지도등을 담당하셨고 현재는 월간충현 주간, 성경학원 지도교역자로 수고하고 계신다.

김중석강도사 유학

성가부와 산업전도교육부의 지도교역자로 수고하시는 김중석강도사가 미국하와이주의 국제기독교대학의 초청을 받고 1년간 유학하게 됐다. 김강도사는 임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수속이 끝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당회장 해외여행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지난 8월 20일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은 북·남미를 주로 하며 해외의 공산권 선교현황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여행으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등을 여행하시게 된다.

약70일간 계획으로 떠나서 오는 10월말경 귀국하실 예정이다.

김차생 장로 도미

본 교회 당회원 김차생장로(월간충현 편집위원·성경학원 원감)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선교부의 초청을 받고 선교협회의와 미국교회, 신학교등을 방문할 목적으로 1개월 예정으로 지난 7월23일 출국하였다. 김장로는 8월말 귀국할 예정이다.

성가대 지휘자 신임

교회는 제3 성가대 지휘자 김성호선생이 이민가게 되어 결원이 된 자리에 김영준선생을 결정하여 임명했다.

김영준선생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영락교회 호산나·베다리·갈보리성가대의 독창자로 영락교회 고등부 성가대·여전도회 여성성가대·송실남성선교합창단 지휘자로 수고해 오셨다.

북한선교회 이사로

최석주·한경일장로

본 교회의 최석주장로(전도위원회 위원장) 한경일장로(초등부 부장, 해외복음선교회 부회장)두 분이 북한선교회의 이사로 선임되어 북한선교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게 되었다.

각 종 통 계

1979. 7. 1 (매월첫주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 통 편)

1. 교회버스편

- 매주일 저녁예배 후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 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 화)

교환 101번을 거쳐서「경기도 광주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분	남	여	계				
집회	예배	주일낮	I 부	207	376	583	신앙	총세대수	3,167	
			II 부	411	918	1,329		교인	남	3,025
			III 부	361	754	1,115			총수	여
			IV 부	177	434	611		계		7,418
	배	주 일 저 녁	141	330	471	급	세례	남	1,691	
		삼 일	117	320	437			여	3,030	
	주일학교	어린이새신자부	40	62	102	별교인현황	입교	계	4,721	
		장년새신자부	46	55	101			유아	남	441
		영 아 부	113	128	241		세례		여	344
		유 치 부	152	151	303			계	785	
		유 년 부	191	180	371		학습		남	275
		초 등 부	207	207	414			교인	여	373
		중 등 부	140	147	287	계	648			
		고 등 부	142	116	258		원입	남	618	
		대 학 부	76	78	154	교인		여	746	
		청 년 부	55	105	160		계	1,364		
		장 년 부	19	276	295					
		노 년 부	33	92	125					
		산 교 육 부	43	114	157					
		새 가 정 부	19	20	39					
		선 교 부	24	50	74					
		계	2,714	4,913	7,627					

8 월의 행사

8월 5일	정기제직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8월6 - 11일	선교부 제 1회 하기 선교훈련
8월 10일	중등부 하기수양회
8월7 - 11일	교회전체 철야기도회
8월 12일	산업전도회 헌신예배 남전도회 · 권사회월례회
8월 13일	특별당회
8월 13 - 15일	장년부 하기수양회
8월 13 - 18일	하기전도대 파송
8월 14 - 15일	영아부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8월 15 - 18일	산업전도 교육부 하기수양회
8월 19일	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8월 20일	교육위원회, 당회장 해외여행차 출국
8월 20 - 21일	노년부 하기수양회
8월 22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8월 26일	구역권찰회, 전도위원회월례회
8월 27일	건축위원회월례회
8월 27 - 29일	여전도회, 권사회 수양회
8월 28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금년도에도 우리는 숨어 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열심히 뛰었다. 예년보다 훨씬 더운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무척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는 열심으로 열심으로 했다. 이와같은 것들이 풍요한 결실을 가져 오도록 계속적인 확신, 양육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굽의 이연호선교사님의 비보는 우리 모두를 아연케 했고 당황케 했다. 애굽선교의 주춧돌을 놓고가신 고이연호선교사님을 생각하며 특집 기획을 하였다. 고이연호선교사님의 홀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애굽선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호의 특별기획을 통하여 해외선교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모두가 깊이 깨닫고 선교대열에 동참하여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본다.

*...8월호가 8월이 다 가는 이때에 나오게 됨을 심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무더위때문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밖에 없다. 9월은 특집발간을 위해 편집실은 바쁘나 많은 성원과 편달 있으시기 바란다.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재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태용 이사례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재원

월 간 총 현

8월호

제 7 권 통권 제 68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8월 26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 가 36

267 - 9937 · 9738



지금도 성경과 같은 계시가 있는지?

성경과 같은 계시는 없어

질문/오늘날도 성경과 같이 권위있는 계시가 있는지요?
소위 계시받았다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오늘날 교회안에서는 새로운 사조와 사이비운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계시가 있는것 처럼 생각하는 교인들과 또 그것을 받으려는 신자들도 생기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오늘의 교회가 조직도 방대하고 교리적 교훈도 정연하지만 내적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정서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내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성경만을 믿고 따르도록 바르게 지도할 책임의식을 새롭게 해야할 때라고 생각된다.

과연 지금도 성경과 같은 계시가 있는가? 한마디로 있을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성경만이 완전한 믿음의 기초요(마7:24 마16:16)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마 5:17-20)이요, 성경만이 참된 소망의 대상(계시록1:3)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어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남 다른 신령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것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계시는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21:25 “예수의 행한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신대로 마감되고 완성된 계시요, 더 이상 보충을 할 필요가 없는 성경이기 때문이다.

히 1:1-2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계시의 시작이요 계시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완성자이심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다. 엡3: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세대에서는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감히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한 다른 계시를 말 할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 아닌 다른 계시에 꿈에라도 의존될 수 없는 것이다.

윌헬름 박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세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신현시대(神顯時代 Theophany) 이는 하나님께서 이 현상세계에 직접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신 때가 있는데 가시됨을 불꽃 속에서 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인자와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 역사하신 족장시대이다.

둘째. 예언시대(豫言時代 prophecy)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 시키시고 계시하신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모든 선지자 시대를 말한다.

세째. 영감시대(靈感時代 Inspiration) 성령강림 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르키는 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믿게 하는 시대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자와 듣는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그러나 계시록 22:18-19에 엄히 경고하신 말씀도 잊을수가 없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증거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위에 더 보태려는 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요, 이 말씀중에서 일부를 제거하려는 것이 세속적인 자유주의인 것이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고 성경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바로 사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요 있는 실재이다.

심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월로암
못가에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